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統一問題理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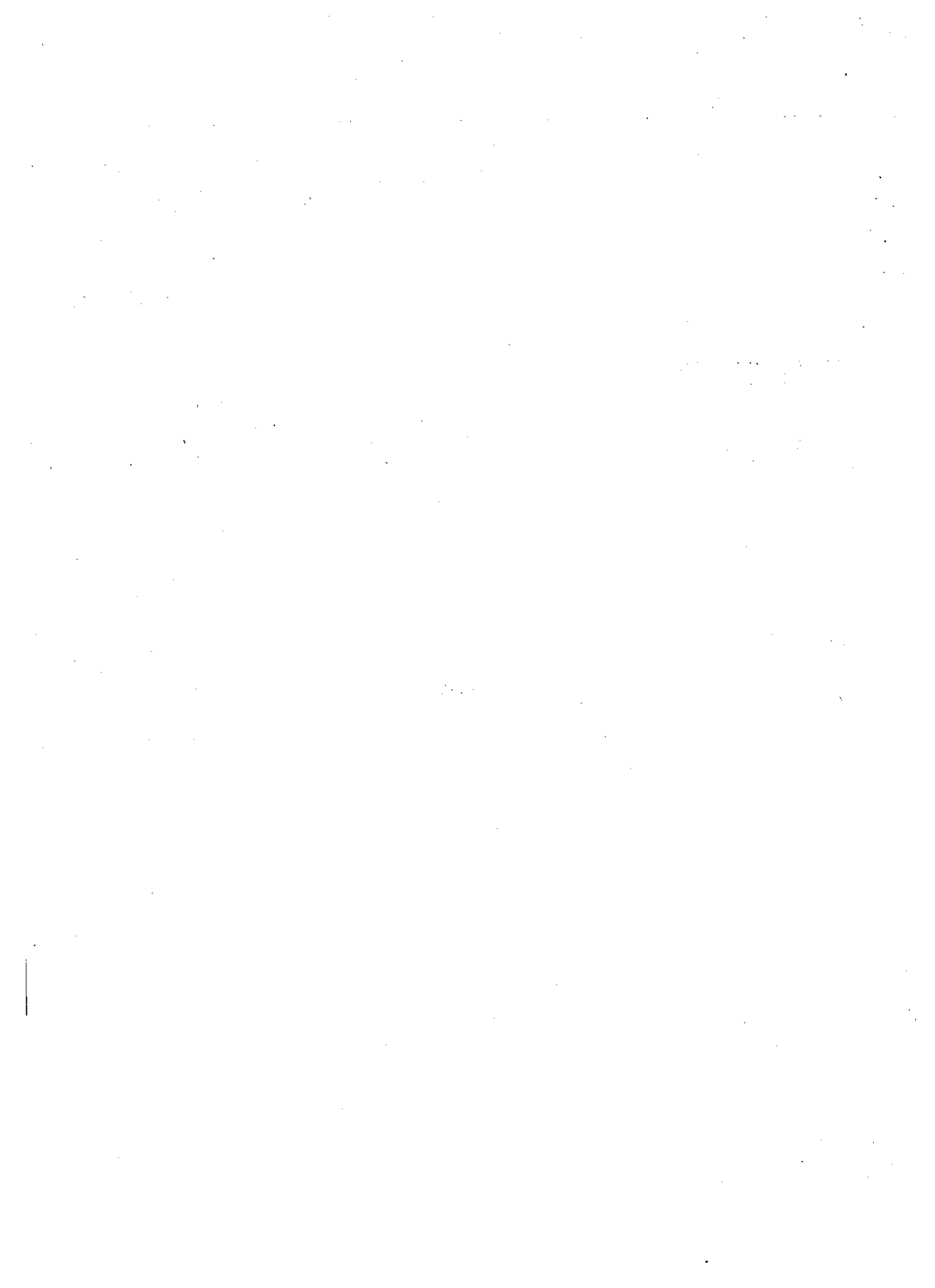
# 共產圈社會變動에 關한 理論研究

研究執筆責任 金 彩 潤

(略歴) 서울大文理大社會學科卒 (1956)  
서울大學校大學院卒 (1958)  
美國哥倫比亞大 University 研究員 (1969~71)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教授 (1966~)

刊行責任 朴 鍾 徹 (政策企劃室第3擔當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I. 序 論 .....	3
1. 研究의 目的 .....	3
2. 研究의 方法 .....	7
II. 北韓의 社会構造 .....	11
1. 社会體系의 一般理論 .....	11
(1) 파아슨스의 社会體系論 .....	13
(2) 社会體系論의 有用性 .....	18
(3) 共產社会分析의 視角 .....	21
2. 北韓社会의 社会主义的改造의 現段階 .....	24
3. 北韓社会의 構造的特性 .....	33
(1) 社会階層構造의 特性 .....	33
(2) 規範的 價值類型의 特性 .....	37
III. 北韓社会의 構造的變動 .....	43
1. 社会變動의 一般理論 .....	43
(1) 社会變動論의 一般的視角 .....	43
(2) 社会體系論的 共產社会變動論 .....	49
2. 北韓社会의 構造的變動 .....	53
(1) 社会階層構造의 變動 .....	55
(2) 規範的 價值類型의 變動 .....	61
IV. 結 語 .....	64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70年代의 시작과 더불어 밀어닥친 國際的解冰의 潮流는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새로운 局面으로 몰아 넣었다. 60年代 中반 이후를 지배하던 韓國, 美國, 日本의 三角協力體制와 北韓, 蘇聯, 中共의 三角同盟體制가 급격히 변질되면서 國際的關係樣相은 새로운 圖式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韓半島를 둘러싼 美國, 蘇聯, 中共, 日本의 周邊四大國의 利害關係는 소위 「닉슨 독트린」이 發表되면서부터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兩陣營의 尖銳한 對立的분위기가 退潮하고 그 대신 각각의 國家利益이 混融되는 多邊的交織狀態가 빚어진 것이다.

원래 韓半島의 分斷은 다분히 韓半島가 차지하는 國際政治的位置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韓半島는 역사적으로 周邊強大國의 勢力이 交叉되는 中間地帶로서 強大國間의 긴장의 정도가 기민하게 반영되는 前哨的性格을 띠어 왔었다. 韓半島는 근래에는 自由陣營의 海洋的伸張力과 共產陣營의 大陸的膨脹力이 맞부딪치는 冷戰의 橋頭壘로서 分斷의 客觀的要因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진영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利害關係의 焦點이 마침내는 38線의 形式을 빌려서 空間的調整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兩陣營의 對立은 軍事的對決도 불사하리만큼 銳角的인 것이었다. 雙方의 利害得失이 零sum의 關係에 처함에 따라 相互 排他的 名分爲主의

時狀態가 지속됐던 것이 지난 冷戰時代의 특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최근에 國際的分化現象이 深化되면서 종래의 協力體制 혹은 同盟體制에 다소의 弛緩現象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自國의 利益에 충실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國際的利己主義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客觀的國際情勢의 변모에 발맞추어 韓國의 發議에 의해서 韓半島에서 取해진 획기적조치가 南北韓의 對話였다. 東西 兩陣營이 각각 體制的安定을 바탕으로 他方과의 타협을 추구하는 脫理念의 추세가 南北韓의 對話를 뒷받침해주는 外部的要因으로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國際的인 客觀的的要因이 반드시 韓半島의 장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작용해 줄지는 의문이다. 東西解冰이라는 新潮流는 주로 強大國들의 主導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른바 大國主義가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큰 것이다. 그것은 南北韓이 순조로히 統合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리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安保라는 現狀維持的的要請과 統一이라는 現狀變更的 要請이 동시에 만족되어야하는 二重構造的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前途는 더욱 착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多極化의 경향속에서 平和共存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의 轉換期的 狀況下에서 韓國이 행할 수 있는 最善은 무엇인가? 冷戰의 論理

와 脫冷戰의 論理가 交錯되어 있고 理念政治的 勢力膨脹의 원리와 權力政治的 勢力均衡의 원리가 뒤엉켜 있는 과도기적인 國際的 狀況 下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國際關係의 動態에 効率的으로 適應함은 물론, 南北韓이 각각 그 對內의 問題點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다. 南北韓의 對話, 나아가서는 統一이라는 課業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韓民族의 主體的이고 融通性있는 태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韓民族의 主體的 態勢를 확립하는데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은 南北韓 各々의 對內의 整地作業일 것이다. 韓民族의 主體的 要請과 必要에 따라서 또 韓民族의 願하는 바에 따라서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體制內의 整地가 體制外의 適應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國際的 狀況이 二重構造的 혹은 二律背反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러면 體制內의 整地의 구체적 內容은 무엇인가? 그 規範的 內容은 한때 「7.4 南北共同聲明」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一方的인 行爲에 의해서 同聲明의 內容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同族相殘의 참극을 예방하고 民族統一의 窮極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北韓은 小我的 執着을 과감히 脫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統一이라는 民族的 課題를 內美로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南北韓社會의 變動에 관한 客觀的인 理解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精確한 展望的 視角을 갖추지 않고 南北의 調節을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盲人의 突進을 보는 것 만큼이나 不安한 일일 것이다. 統一을 위한 南北韓의 接近이 內在的必要性에 부합하는 것이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社会交動이 構造的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社会交動의 推移를 명확하게 鳥瞰함으로써만 南北調節의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社会의 構造的交動은 지도층의 意圖的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自然發生的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社会의 自然發生的 進路의 軌跡을 파악하고 그 부족한 면, 혹은 歪曲된 면을 人爲的으로 修正, 補完하는 것이 現代社会運營에 있어서의 하나의 常道로 되어 있다. 이러한 原理는 南北韓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은 南北韓의 관계를 改善하고 나아가서는 民主的統一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實踐的命題를 생각할 때 더욱 鮮明해지는 問題意識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 있다. 北韓의 社会構造를 交動的側面에서 考察함에 있어서, 특히 그 視角의 焦點을 南北關係의 調節과 統一이라는 우리의 意圖的努力에 맞추는데에 있어서는 北韓의 自然發生的交動의 推移를 看過하기 쉽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들의 政治의 役割이 지나치게 중요시되는 나머지 北韓의 社会的諸部面이 과연 南北韓의 調節 혹은 統一에 適合한 方向으로 再編成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소홀히 하게 되기 쉽다는 뜻이다. 政治에 의해서 추진되는 人爲的進路도 社会構造의 自然發生的인 再整備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非效果的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 論文의 目的은 北韓社會의 變動論的考察에 있다. 특히 産業化의 추세가 北韓社會의 體制的性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論議의 초점을 두고져 한다. 産業化의 動力이 결코 周邊的이고 末稍的인 것이 아닐진대 硬直하기로 이름난 北韓의 社會體制일지라도 거기에는 모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産業社會論者들이 주장하는대로 脫理念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알정한 정도의 부수적인 諸現象을 야기시킬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敎條的共産主義理念에 盲從하는 北韓의 好戰的指導層도 産業化의 추세가 수반하게 될 自然發生的變動要因을 완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論文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져 하는 것이다. 北韓에서 進行되고 있는 産業化의 過程과 그 結果를 社會變動論的인 立場에서 究明함으로써 北韓의 社會體制的 變貌可能性을 생각해 보고져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北韓의 社會體制를 變貌시킬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動力이라고 믿어지는 産業化의 側面을 照明함으로써 하나의 프리즘의 效果를 기대해 보려는 것이다.

## 2. 研究의 方法

共産圈社會 특히 北韓社會에 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諸研究는 그 대부분이 方法論的體系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것이라고는 할수가 없다. 自由陣營의 社會科學이 발전시켜온 社會理論들은 대부분 自由主義的社會觀을 그 전제로서 함축하는 것이고, 실사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共產圈社会에 있어서의 人間關係를 기본적인 出發點으로 삼은 것은 찾아 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西方的인 方法論의 體系와 理論의 模型을 共產社会에 適用, 分析을 시도한 것은 상당수 있으되 그것도 共產圈社会分析에 適合性을 갖도록 그 社会의 特殊性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손쉽게 接할 수 있는 研究物들은 거의 모두가 西歐의概念과 西歐的理論의 模型에 立脚해서 共產圈社会를 비교 고찰한 것들이다. 共產圈社会를 深層으로부터 分析, 理解하고자하는 우리의 意圖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方法論的限界가 克服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그것은 共產圈社会의 理念의特殊性에 뿌리박고 있는 共產主義的理論에 의거함으로써 해결될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理論들은 지나치게 이데오로기의 色彩를 띠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政治權力의 規範的 要求事項에 맹종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歪曲시키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토록 援用할만한 先驅的理論이 결핍된 狀況에서 이 論文의 소기의 목표가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다만 모범적인 研究의 뒤를 쫓아 그 理論의 全體的骨格을 社会의 特定側面에 적용함으로써 研究対象에 대한 間接적인 이해를 얻을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与件의 制約은 이 論文으로 하여금 부득이 불만스러운 方法을 採択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普遍性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

되는 一般理論을 分析의 準拠로 삼고 우리가 접할수 있는 몇가지의 實際的資料를 거기에 맞추어 적용해 보는 정도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도 結局은 앞에서 지적한 바 共產圈社会에 관한 종래의 연구가 내포하는 未備點을 完全하게 脱皮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끝으로 共產圈社会, 특히 北韓社会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基本的資料의 부족에서 오는 制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共產圈社会自體가 극단한 閉鎖性을 띠고 있는 만큼 거기에 관한 基本的資料가 源泉的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러운 일일른 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稀少한 자료나마 그것을 入手, 閱覽하기조차 또한 어려운 만큼 資料難은 더욱 加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信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共產圈社会의 公式的 出刊物은 그 대부분이 誇張, 歪曲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基本的資料의 빈곤에서 초래되는 制約點은 다른 方法에 의해서 打開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여기 우리는 접할 수 있는 몇가지의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理論的骨格에 신중히 견주어 보는데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論文은 主題에 관계되는 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참조하고 그것들을 再編成하는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이 論文은 여러가지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實証的, 經驗的研究가 될 수 없었고, 다만 몇가지의 資料를 社会學的理論에

비추어서 再整理해 보는 일종의 豫備的研究作業의 성격은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본격적인 実証的研究을 위하여 하나의 假說을 제공하는 길잡이의 구실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 II.北韓의 社会構造

### 1. 社会體系의 一般理論

社会学이 社会를 하나의 社系로 보고 그 體系의 綜合的 認識에 도달하려고 努力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社会学의 學說史를 살펴 보면 초기의 社会学은 社会와 歷史에 관한 進化論的 또는 決定論的 認識을 기도한 일종의 綜合的 社会哲學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社会学의 諸概念은 다소 구체화되고 그리하여 경험적인 성격이 좀더 두드러진 研究들이 행해지게 되었다. 물론 거기에도 허다한 결함이 내포되어 있었다. 당시의 社会學者들은 社会에 대한 상당히 세련된 分析을 보여 주기도 하였지만 社会的 諸部門과 社会的 諸次元을 일관성있게 包括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理論的 體系를 樹立하지는 못하였다. 겨우 몇가지의 範疇를 骨格으로 세우고 거기에 의거해서 社会현상을 두루 설명하고자 한 것이 그동안의 경향이었다. 퇴니이스(F. Tönnies)의 「共同社会」와 「利益社会」에 관한 研究, 쿨리(C.H. Cooley)의 「一次集團」과 「二次集團」에 관한 研究 등은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다.

社会體系의 觀念은 무엇보다도 종전의 社会学이 지녔던 단편적이고 非體系의인 결함을 克服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이다. 그것은 社会를 諸要素의 유기적인 集合體로 보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立

體的이고, 自己完結的인 體系的屬性을 강조한다. 그것은 社会諸單位  
를 上位體系와 下位體系로 分析하고 그들의 相互關係를 살피면서  
동시에 그 體系가 놓인 바 狀況을 문제로 삼는다.

社会體系的 觀念 속에는 몇가지의 概念이 混合되어 있다. 먼저  
「均衡」의 概念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것은 生物有機體가 그러  
하듯이 社会도 항상 均衡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相互依存性」의 概念이다. 그것은 社会的 諸  
構要素는 分散孤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機能的으로도 相互依存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로 거기에는 自己完結性 또는 境界維持性의 概念이 있다. 社会體  
系는 外部的狀況 또는 다른 體系와 구별되는 뚜렷한 境界를 가지  
고 있고 그 境界 내부의 諸要素는 비교적 自足的狀態를 유지한다  
는 것이다.

「社会體系」라는 術어가 社会学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에 있어서는 그 초창기부터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理論的 혹은  
概念的 前제를 분명히 내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파레  
토(V. Pareto)를 전후한 비교적 근래의 일에 속한다. 오늘날  
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社会體系論者로는 파아슨스(T. Parsons)  
를 들 수가 있다. 파아슨스의 全著作을 貫通하고 있는 社会體系論  
은 그의 이른바 構造-機能主義的方法의 도움을 받아 現代社会学의  
主流的脈絡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1) 파아손스의 社会體系論

파아손스는 社会體系를 「복수의 行爲者의 相互作用의 體系」<sup>1)</sup>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의 社会学理論은 行爲體系의 이론이 그 출발점을 이룬다. 그는 먼저 행위의 準拠標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체계를 心理的, 社会的, 文化的 諸側面으로 분석한다. 즉 그는 行爲體系라는 上位體系를 설정하고 그것을 퍼스널리티體系, 社会體系, 文化體系라는 下位體系로 나누어 고찰하는 理論的構造를 제시하는 것이다.

파아손스에 있어서 행위의 準拠標에는 行爲者, 行爲의 狀況 그리고 行爲者의 狀況에로의 志向이 내포된다.<sup>2)</sup>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行爲者의 狀況에로의 志向」이다. 그것은 行爲者가 對象으로 志向할 때 欲求的側面으로서 行爲의 기초가 되는 動機志向과 그 動機를 규제하는 規範的基礎가 되는 價值志向의 두가지로 분석된다. 그 두가지 側面은 결국 類型化됨으로써 하나는 社会體系的 動態的機能範疇로, 다른 하나는 社会體系的 靜態的構造範疇로 體系化되는 것이다.

한편 社会體系를 行爲者들의 相互作用의 體系로 볼때 行爲者는 각자의 役割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므로 社会體系는 곧 役割의 體系로도 볼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役割은 類型化되어 體系를 이루고 그것이 곧 社会的制度로 되는 것이므로 社会體系는 또한 制度의 體系인 셈이다. 파아손스는 制度를 곧 個別的인 諸行爲者의 價值志向이 固着化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社会體系的

構造的側面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價值志向의 類型이 靜態的으로 固形化된 것이 社會體系의 構造라고 보는 셈이다. 그럼으로 파아슨스에 있어서 社會構造의 分析은 곧 價值志向의 類型을 찾아내는 일인 것이다.

파아슨스는 行爲者가 狀況에 志向할 때는 對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重視한다. 그리하여 그는 選擇의 기본적인 類型을 兩者択一的인 變數로써 定式化하게 된다. 그것이 유명한 파아슨스의 「類型變數」이다. 그것은 곧 行爲者가 狀況에 志向하는 價值志向의 유형일 뿐만이 아니라 社會體系의 構造的側面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섯가지의 類型變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3)</sup>

#### ① 情誼性과 感情中立性

이 두가지는 滿足과 規律의 모순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情誼性은 行爲의 對象으로부터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感情中立性은 規律에 의거하여 만족을 연기하는 規範的傾向이다.

#### ② 集團志向性과 個人志向性

이것은 集團과 個人間의 利害關係의 모순에서 빚어지는 두갈래 같다. 前者는 集團의 目的과 利益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後者는 個人的 目的과 利益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 ③ 特殊性과 普通性

이것은 價值志向의 基準的類型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變數들이다. 前者는 相互關係의 特定的位置 혹은 立場에 따라서, 특수한 양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고, 後者는 對象을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인 양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관계는 特殊性에 立脚한 것이고, 商人과 購買者의 관계는 普遍性에 立脚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帰屬性과 成就性

社会的對象의 樣態는 선택에 관련된 變數이다. 전자는 對象의 特質을 문제삼는 것이고 후자는 대상의 業績을 문제삼는 것이다. 身分, 年令, 性別등에 따라서 사람을 判別하고 거기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전자의 事例이고, 能力과 業績에 따라서 사람들을 식별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후자의 事例이다.

#### ⑤ 広範性과 限定性

이것은 대상에 대한 關心의 幅에 관련되는 變數이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屬性의 전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전자이고, 대상의 特定側面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후자이다. 가족과 이웃의 共同體的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전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각종의 利益集團的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향이 짙다.

파아슨스는 위에 열거한 諸類型變數중에서 특히 普遍性과 特殊性, 成就性과 帰屬性의 變數를 중시하고 그것들을 組合, 거기에서 네가지의 대조적인 社会構造의 유형을 抽出한다. 4) 즉 普遍 - 成就性의 유형, 普遍 - 帰屬性의 유형, 特殊 - 成就性의 유형, 特殊 - 帰屬性의 유형이 그것이다. 그는 이 네가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美国, 독일, 古代中國 등의 社会를 비교하고 있다.

社会體系의 動態的機能의 側面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行爲體系의 動機志向으로부터 살펴 보지 않으면 안된다. 파아슨스는 개별적인 諸行爲者의 動機化過程이 社会體系의 구조에 대해서 維持的作用을 하는가, 아니면 解體的作用을 하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社会體系의 기능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動機化過程은 「社会化의 메카니즘」과 「社会統制의 메카니즘」의 두가지로 分析된다.<sup>5)</sup> 여기 社会化란 學習過程을 통하여 制度的價値의 유형, 즉 規範의 體系가 內面化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社会化의 과정을 통해서 社会的 혹은 文化的作用이 인간의 퍼스낼리티體系에 파고드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아슨스는 특히 개인이 社会化의 과정을 통하여 社会的制度에 同調하게 되는 점을 중시한다. 말하자면 心理學的學習理論에 입각하여 社会化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그는 모방과 試行錯誤, 그리고 條件反射 등에 의해서 社会體系의 가치와 규범의 내용이 內面化되어지는 原理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社会化의 메카니즘이 社会의 구조에 대해서 構造維持的인 方向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쉽사리 알아 볼 수가 있는 일이다. 社会化라는 것이 生理的, 心理的, 諸欲求를 스스로 통제하고 社会體系 속에서 통용되는 바 제도화된 規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이 社会化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충분할 정도로 社会化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制度的規範 속에서 欲求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부딪칠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

러한 경우 사람들은 규범을 이탈하여 이른바 逸脫行動을 자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일정사회가 가지고 있는 機會構造 혹은 報償體系에는 制約이 있고 동시에 諸個人의 欲求水準에는 특정한 上限線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逸脫行動의 가능성은 언제 어디에나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逸脫行動을 규제하는 것이 「社會統制의 메카니즘」이다. 「社會統制의 메카니즘」은 곧 逸脫行動에 의해서 社會體系의 均衡狀態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制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파아슨스가 말하는 「社會統制의 메카니즘」의 制裁的機能은 強制的抑壓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報償까지도 包含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 「社會統制의 메카니즘」은 앞에서 말한 「社會化의 메카니즘」과 함께 社會體系의 機能的分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파아슨스에 있어서 社會體系는 制度的規範의 구조적측면과 動機化過程의 기능적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조적측면과 기능적측면이 긴밀히 연락되어서 社會體系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수가 있다. 社會體系가 그것이 놓인 특정 상황 속에서 스스로 均衡狀態를 유지하게 될때 그것이 곧 「境界維持의 體系」인 것이다.<sup>6)</sup> 파아슨스는 이 「境界維持의 體系」의 觀念을 통하여 社會體系의 변동을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社會變動은 社會構造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社會化와 社會統制의 動態的反應過程이다. 그는 社會體系 자체의 구조적변동보다는 社會體系内部的 均衡回復的現象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는 「社會化의 메카니즘」이 社會體系의 均衡을

유지시켜 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한편, 逸脫行動이 社会體系의 均衡을 파괴시켜 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다시 그 不均衡을 회복시켜서 再均衡化하기 위한 「社会統制의 메카니즘」이 作用하는 動的過程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파아슨스는 종래의 體系內的變動論에서 할 것임 더 나아가 構造的變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7) 그는 社会變動에는 복수의 要因이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文化的要因이 중요하다는 視角을 취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多變數決定論의 혹은 文化變數優位論의 社会進化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8)

## (2) 社会體系論의 有用性

파아슨스는 社会體系理論에 대해서는 수다한 비판이 가해진다. 이를테면 葛藤論의 社会学理論으로 유명한 다아렌돌프 (R. Dahrendorf)는 거기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9)

① 社会體系論은 普遍的價值合意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葛藤을 그속에 包摂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갈등은 기본적으로 價值에 대한 異見, 意見의 不一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社会體系論은 有機體와 같은 動的均衡을 전제로 삼기 때문에 構造的變動을 설명하지 못한다. 社会體系論은 이를테면 사람이 출생하여 社会化의 과정을 거쳐 사회내에 배치되는 과정이 「社会統制의 메카니즘」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社

社會體系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社會變動의 현상이 包括的으로 파악되어 질수가 없다는 것이다.

③ 社會體系論은 社會는 閉鎖的이며, 自己維持的이며 內的一貫性을 가진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社會는 存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社會體系論에 대한 호우만스 ( G. Homans ), 룡 ( D. Wrong ) 등의 비판은 다분히 휴머니스틱한 성질의 것이다.<sup>10)</sup> 즉 그들은 파아슨스의 社會體系論은 제도화된 행동, 제도화된 규범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경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生動하는 諸個人을 포착하지 못하는 根本的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 지나치게 社會화된 人間 」만을 論議의 대상으로 삼으므로써 이가이 가지고 있는 創造的이고 自律的인 측면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아슨스와 그 學派를 향하여 「 人間을 回復하라 」고 외치는 것이다.

파아슨스에 대한 상기한 제비판은, 각각 그 나름의 妥当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이다. 諸批判은 파아슨스의 社會體系論이 지니고 있는 결함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社會體系論이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北韓社會의 分析에 援用하려고 하는데에는 그럴만

한 몇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共産圈社会에 관한 한, 상기한 社会體系論의 결함은 그 社会의 分析에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逆說的結論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파아슨스의 社会體系論은 自由開放社会의 토양속에서 배태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共産圈의 閉鎖的全體主義社会의 分析에 適합한 側面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共産圈社会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견해를 想起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① 이데오로기를 中心으로 하는 價值合意의 정도가 開放社会에서 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② 社会的葛藤이 制度化되어 있지 않다.

③ 「社会化的 메카니즘」과 「社会統制的 메카니즘」이 開放社会에서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④ 社会體系의 閉鎖性, 自己完結性이 좀더 두드러지고, 적어도 政治的, 文化的인 측면에 있어서의 獨自性은 어느 社会에 있어서보다도 強調되고 있다.

共産圈社会가 갖는 상기한 諸特徵은 社会體系論의 諸前提에 매우 近接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많은 무리와 억측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끌리어 여기 社会體系論을 北韓社会分析의 모델로 挾하게 된 것이다.

### (3) 共産社会分析의 視角

共産主義社会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視角이 있을 수 있다. 먼저 全體主義의 이론을 들 수가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西歐의 학자들이 非西歐的社会體制를 一括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취하는 視角이다. 그 代表的인 學者로는 아렌트 (H. Arendt), 노이만 (F. Neumann), 콘하우저 (W. Kornhauser)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11) 이들은 흔히 大衆社会論者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政治的支配層과 大衆이 中間集團의 媒介없이 分立되어 있는 狀況을 중시한다. 그들은 現代社会의 巨大化, 官僚制化, 自動化 등의 추세가 全體主義的社会和 大衆社会의 두가지 選擇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의하면 全體主義社会와 大衆社会는 大衆이 集合的活動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兩者間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大衆社会에 있어서의 大衆의 集合行動은 현상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全體主義社会에서 볼 수 있는 大衆的集合行動은 政治的指導層에 의해서 강요되는 體制奉仕的活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全體主義的概念에서 共産圈社会를 바라보는 경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특징이 지적될 수 있다.

① 政治엘리트와 大衆이 兩極으로 分立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緩衝的 中間集團이 없다.

② 政治엘리트의 政治的操縱力이 속속들이 파고 들어 大衆을 體

제에 철저하게 奉仕하겠끔 동원한다.

③ 社會의 諸部面에 一元主義가 팽배해 있다.

共產主義社會에 대한 全體主義理論 이외의 視角으로는 動員體制의 理論과 運動體制의 理論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예로서 애펀 (D. Apter), 후자의 예로서 터커 (R. C. Tucker)의 理論을 각각 들 수가 있다. 12)

動員體制의 視角은 共產圈의 社會體制와 非共產圈의 權威主義的社會體制를 일괄하여 관찰하는 경향을 띤다. 運動體制의 視角은 共產圈의 社會體制, 파쇼의 社會體制, 그리고 民族主義的 革命의 社會體制등이 한결같이 一党的構造를 지닌 體制라는 점을 중시하고 그들간의 同質性을 강조한다. 이 두가지의 見解는 오늘날의 共產主義社會와 非共產主義社會를 連續線上에서 한뫼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앞에서 본 全體主義理論이 共產主義의 社會體制와 非共產主義의 社會體制를 斷絶的이고 對立的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생긴 것이다. 특히 터커는 共產主義의 社會體制가 역사와 민족과 社會的背景에 있어서 다양한 여러 지역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점을 중시하고 共產主義의 社會體制를 理念에 기초한 하나의 文明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치 西歐文明이 地域的 特殊性을 초월해서 전파되고 있드시 共產主義의 文明도 文化傳播의 과정을 밟아서 蘇聯의 周邊國家들에게 移植된 外因的文明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몇가지의 취할 점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全體



主義理論이 西歐의 社會體制의 開放性과 非西歐의 社會體制의 閉鎖性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共產主義의 社會體制를 극도로 異質的인 것으로만 보게하는 偏見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상기 두가지의 觀點은 共產主義의 社會體制와 非共產主義의 社會體制를 連續線上에서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全體主義의 視角은 産業化되고 均衡化되어가는 共產主義社會의 動向을 포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인데 대하여 動員體制와 運動體制의 視角은 그것을 포섭할 수 있게 하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共產主義社會들도 經濟發展을 國家的目標로 내세우고 産業化를 급속도로 추진시키고 있는 근래의 사정을 勘案할 때 그러한 視角은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社會體제도 政治, 經濟, 文化 등의 諸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그 體制的性格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共產主義社會의 특수성은 그 社會의 經濟的 발전정도, 이데오로기의 浸透程度, 社會集團의 分化程度 등의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비로소 원만하게 파악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體主義理論이 취하는 劃一的인 單純圖式으로써 共產主義社會를 설명하려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全體主義的 視角의 固定的 觀念으로서의 共產主義社會에서 일어나는 社會過程을 파악할 수가 없고 東歐 共產圈에서와 같은 多元的 體制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거기에 의해서는 특히 共產主義社會의 體制的性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融通性있는 관찰을 허용해 주는 動員體制 혹은 運動體制의 概念을 빌려서 北韓社會의 특성에 관한 하나의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는 먼저 전술한 社會體系의 一般理論을 分析의 用具로 삼아 北韓社會의 運動體制的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北韓社會의 社會主義的改造의 現段階

먼저 北韓社會의 구체적인 實相을 그들의 이른바 「社會主義的改造」라는 각도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北韓社會가 해방이후 겪어온 社會主義的改造의 과정은 대체로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1957년에 착수된 「第一次五個年人民經濟計劃」을 分岐點으로 하여 그 이전을 「社會主義的改造의 整地作業時期」, 그 이후를 「社會主義的工業化的 本格化時期」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1) 社會主義的改造의 整地作業時期

北韓에 있어서 社會主義的改造作業은 먼저 1946年3月5日부의 「土地改革法令」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른바 「反封建」의 旗幟를 내걸고 요지. 다음과 같은 原則아래 土地改革을 강행하였다. 13)

#### ① 無償沒收, 無償分配

② 小作制撤廢

③ 分与土地壳買抵当禁止

④ 一部土地国有化

급속히 진행된 改革에서 日本人所有地, 地主所有地 및 이른바 民族反逆者의 所有土地등 100餘万町歩가 無償沒收되어 土地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그 결과 自作農 25%, 兼作兼小作農 31%, 小作農 43%, 農業勞動者 1%였던 土地改革 이전의 農村構造<sup>14)</sup>가 国有地 2%, 農民所有土地 98%로 변모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른바 「耕作地制度」가 일단 確立되기에 이른 것이다.

産業施設에 대한 社会主義的改造作業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동년 8月 10日부로 「重要産業国有化法令」이 制定·公布되었다. 이른바 「反帝國主義」의 구호아래 北韓에 소재한 工場, 鐵道, 運輸, 通信, 銀行등의 施設物 일체를 国有化한 것이다. 거기에는 1,034개소에 이르는 重要産業施設이 包含되었다. 이 조치는 日人所有의 生産施設의 접수뿐만이 아니라 소위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경제적기반을 박탈한 것으로서 土地改革과 비슷한 目的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취해진 国有化措置는 아직 中小商工業者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소위 打倒對象으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들의 所有權과 企業活動은 형식상으로는 보호되면서 다음 기회에 정리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상기한 제반의 初期的整備作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職業別人口

構成을 초래하였다. 15)

勞働者	12.5 %
事務員	6.2 %
個人農民	74.1 %
個人手工業者	1.5 %
個人企業家	0.2 %
個人商人	3.3 %
其他	2.2 %

土地改革에 의해서 小作農, 農業勞働者層이 대거 個人農民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것이 北韓社會集團의 主軸을 이루게 되었다. 工業化가 본격화되지 못한 당시로서는 勞働者層이 그 量과 質에 있어서 아직 主導階級으로 되기에는 미흡하였다. 1947年부터 시작된 社會主義的計劃經濟가 실시되면서 工業的生產이 점증되고 그에 따라서 勞働者層의 비중도 증대되어 가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는 아직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6.25를 거치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착수한 작업도 역시 農村에 관한 것이었다. 이른바 「農業協同化運動」이 그것이다. 1953年에 그 原則이 확정되고, 1954年부터 본격화되어 1958年8월에 일단 마무리된 이 農業協同化運動은 다른 社會主義國家에서도 그 유희를 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과격하고, 아주 급격하게 추진된 것이다. 과도적인 중간단계를 밟지도 않고 土地와 基本的인 生産手段을 協同組合에 帰屬시키고 오직 勞動에 따라서만 分配를 받는

철저한 社會主義的인 형태의 集團化를 실시한 것이다. 土地改革을 실시한 위에 다시 農業集團化運動을 벌인 결과 北韓 農民의 個人所有物이라고는 호미, 낫 등의 小農具와 菜田으로 경작하는 30 - 50 명의 텃밭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모든 農土가 社會化되면서 總耕地面積의 94 %를 「協同農場」이 점유하고 나머지 6 %도 「國營農場」이 점유. 경영하게 된 것이다. 16)

이와 병행하여 초기의 「重要産業國有化」 措置에서 일단 제외되었던 群小個人商工業도 이 단계에서 드디어 社會主義化되기에 이르렀다. 주로 도시에 흩어져 있는 零細手工業者, 自由職業者, 中小商人등을 단계적으로 集團化시켜 組合에 소속시켰다.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낙착된 地位는 賃金勞動者의 그것이었다. 이로써 社會主義的改造의 손길은 社會的基層에까지 이른 셈이었다. 그러한 일련의 작업이 대충 마무리된 것은 1958年을 전후한 일이다. 그리하여 1958年을 전후하여 北韓의 社會主義的改造의 整地作業은 物的, 組織的인 측면에서 일단 그 土臺가 마련된 셈이었다.

## (2) 社會主義的工業化의 本格化時期

6.25 이후 戰禍復旧를 위한 經濟政策이 1956年으로서 일단 끝나자 그 다음해부터는 重工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른바 「第一次五個年人民經濟計劃」이 착수되었다. 그 計劃의 基本적노선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17)

① 植民地的 偏頗性退治, 社會主義的工業化의 土臺築成, 技術裝備의

導入 및 대규모적 基本建設을 進行할 수 있는 物質的, 技術的 條件의 준비

② 農業의 協同化와 個人商業의 社會主義的改造에 의한 唯一的 支配의 確立

③ 人民의 衣食住問題의 基本적 해결

위와 같은 基本路線 아래 다음과 같은 政策目標들이 집행되었다.<sup>18)</sup>

① 工業化의 토대가 되는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国营 및 協同團體의 工業生産高를 2.6배 이상으로 성장시킨다.

② 農村經濟部門에서는 米穀生産을 위주로 하면서 工藝作物, 畜産業, 과수업, 蠶業을 동시에 급격히 발전시키며, 農村經濟의 協同化를 完成하고 협동경제를 組織 강화하며, 특히 米穀問題를 해결하며 自然纖維의 生産을 급속히 증가시킨다.

③ 運輸 및 通信部門에서는 人民經濟的 需要를 원만히 충족시킨다.

④ 商品流通 및 收買事業을 강화 개선한다.

⑤ 勞動生産能率을 높인다.

⑥ 새로운 技術을 광범히 도입하며 科學研究事業을 적극 추진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基本目標을 설정해놓은 「五個年計劃」은 사실상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工業化의 기초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同計劃은 대체로 目標에 미달된채 1959년에 앞당겨 그 終結이 선포되고 당초의 計劃目標은 그 다

음의 「緩衝期經濟計劃」으로 移越되었다. 「五個年計劃」에 앞서서 실시되었던 「三個年計劃」이 戰爭前의 生産水準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지만 그 「三個年計劃」은 물론 「五個年計劃」조차도 戰爭前의 生産水準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工業化를 향한 진정한 출발은 그 뒤의 「七個年計劃」으로 미루어지게 된 셈이다. 19)

1961년에 시작되어 1967년에 종결되기로計劃되었다가 다시 1970년까지 연장된 「七個年經濟計劃」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政策目標를 내건 것이었다. 20)

- ① 重工業의 우선적발전
- ② 輕工業과 農業의 併行發展
- ③ 전면적인 技術革新
- ④ 文化革命과 人民生活의 향상

거기에서도 특히 重工業建設에 力點이 주어진 것은 앞서 실시된 「五個年計劃」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계 공업을 성장시킴으로써 社會主義的改造의 물질적 토대를 다지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軍事産業의 育成과도 緊密한 關係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차례에 걸친 經濟計劃을 觀류하고 있는 「重工業優先主義」는 갈수록 深化되었다. 가령 기계공업을 보면 그것이 工業總生産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958년에 17.3%였던 것이 1959년에는 20.6%, 1967년에는 31.4%에 이르는 놀라운 확대 과정을 거쳐

은것이다. 21) 이것은 工業總生産額自體가 國民總生産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급속도로 증가된 점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증가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추세는 重工業部門에 대한 投資比率이 언제나 전투자금의 40%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실감할 수 있는 일이다. 國民의 實生活과 직결될 수 있는 輕工業 및 소비재공업을 외면한채 重工業, 그중에서도 특히 기계공업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온 北韓의 실정은 마치 不均衡的成長의 표본처럼 보일 정도이다. 아무튼 그동안에 北韓은 상당한 수준의 工業化를 이룩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들은 1946年이래 年平均 19.3%의 성장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심한 隔差現象을 제재한 것이다. 즉 그들은 農業과 輕工業分野의 落後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그토록 國民의 日常的欲求를 외면하고도 그러한 工業化政策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던 動力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말할것도 없이 그것은 北韓이 對外的緊張을 이용해서 對內的不安과 葛藤을 통제하는 要塞國家的環境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아울러 공공목표를 위하여 大衆을 선동적인 方法으로 동원하는 動員體制, 또는 運動體制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이른바 「千里馬運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천리마운동」은 經濟計劃을 추진하는데에 必要한 資源과 技術 그리고 勞動力의 제요소중에서 주로 勞動力의 不足을 해결하고 아울러 다른 요소의 부족도 보충하기 위한 目的으로 出發된 것이다. 그것



은 「최대한의 增産과 節約」이라는 구호아래 전개된 集團的, 組織的 社会主義勞動競争運動이었다.

1958년에 접어들자 「千里馬作業班運動」이라는 이름을 내친 「천리마운동」은 한층 더 가열되었다. 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이데오로기적성격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테면 인텔리기술자를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세력으로 비난하면서 大衆의 革命的熱情을 고무한 것이다. 共産党 第4次党大会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 우리의 社会主義建設이 昂揚期에 들어섰을 때 근로자들의 革命的열의와 創造的 적극성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로 된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神秘主義였다. .... 소극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낮은 公称能力的 기준에 매어달리고 과학과 기술을 神秘化하면서 大衆의 무궁한 創造性을 억압하려 하였으며, 難關에 굴복하고 革新을 두려워하면서 大衆의 장엄한 前進運動을 저지시키려 하였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技術神秘主義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社会主義建設의 大高潮를 이룩할 수 없으며 천리마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22)

北韓의 政策担当者들은 「千里馬作業班運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社会主義競争運動이 增産, 경제, 계획완수, 절약투쟁, 원가저하, 생산성장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것은 사람들을 共産主義思想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革命教養, 党政策教養, 階級教養, 共産主

義教養을 부단히 강화하는 革新運動

② 社會主義 競爭運動이 勞動階級中에서 工業分野에만 目的을 두고 있는데 대하여 그것은 農業, 建設, 運輸, 商業, 教育, 文化, 保健, 심지어 人民班에 이르기까지 勞動者가 살고 있는 모든 단위에 서 전개하는 運動

③ 社會主義 競爭運動이 주로 개별적 혁신운동임에 대하여. 그것은 生産單位인 作業班을 단위로 전개하는 군중적혁신운동

④ 社會主義 競爭運動이 年間的으로 紀念日 등을 계기로 벌림에 대하여 그것은 社會主義建設의 全기간에 걸치는 長期性을 띤 군중적혁신운동

「千里馬運動」은 50年代 후반을 뒤덮고 있었던 經濟的目標와 政治, 社會的 여건의 葛藤과 마찰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대중동원의 一方法이었다. 여기 政治, 社會的 여건이란 주로 支配層内部의 權力鬭爭과 大衆의 階級意識의 박약을 의미한다. 아무튼 「千里馬運動」은 「千里馬作業班運動」으로 발전되면서 그것이 고취하는 集團主義的思想에 힘입어 生産能率을 높이는 데에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이 시작된 이래 1964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고 그것이 미친 分野는 工業뿐만이 아니라 文化에 이르기까지 다양, 광범했으며 따라서 그 영향은 深大한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23)

### 3. 北韓社會의 構造의 特性

해방이후 北韓에서 取해진 소위 「社會主義的改造」의 特征은 北韓의 社會構造에 상대한 變化를 래하였음이 됨없을 것이다. 그것은 社會生活의 物質的基礎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社會生活의 意識的次元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變化를 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社會階層構造의 側面과 規範的價值類型의 側面에서 北韓社會의 構造의 特性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社會階層構造의 特性

北韓의 階層構造는 자연스러운 社會的 再編成過程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격한 爲的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政治的支配層에 의해서 意圖되고 計劃된 方向으로 재편성된 것이다. 사실 앞에서 살펴 본 社會主義的改造의 策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곧 社會階層構造의 變革作業이기도 한것이였다.

「反封建主義」, 「反帝國主義」의 구호와 함께 개략된 해방직후의 이른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期」에 있어서는 地主와 親日派의 除去作業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였다. 그들은 종래의 地主階層을 土地改革을 통하여 도태시키고 雇農과 貧農의 지위를 끌어 올리려고 하였다. 또한 日本人이 所有하였던 企業體, 親日派所有의 企業體를 「重要産業國有化」 조치에 의거, 沒收함으로써 社會主義的國有化作業

에 착수하였다. 이 두가지 조치는 經濟的인 上流階層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社会階層構造에 대하여 중요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해도 社会主義的改造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溫在하고 있었다. 도시의 個人商工業이 그것이고, 農村의 家内工業經營이 그것이다. 1947년에 「北朝鮮人民委員會」가 成立됨과 동시에 이른바 「프로레타리아의 獨裁」에 의한 社会主義過渡期를 마지하여 비로소 資本主義的 經濟生活를 청산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全經濟活動에서 国营部門과 協同部門이 엄청나게 성장되고 資本主義的經濟形態는 形便없이 위축된 것이다.

6.25 이후 社会主義的改造의 기운은 더욱 강화되었다. 農業을 集團化하는 「協同農場」과 商工業을 集團化하는 「生産協同組合」을 만드는 強圧的措置가 取해졌다. 土地와 生産手段을 통합하고 작업을 공동으로 행하며 오직 勞動에 따라서만 分配를 받는 가장 극단적인 形態를 扞한 北韓의 農業集團化運動은 北韓의 農民을 빠짐없이 農業勞動者로 만든 것이다. 1957년에 시작되어 農業集團化運動과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生産協同組合運動은 도시에 農村에 殘存하고 있던 群小商工業者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로써 商工業者는 協同組合에 生産手段을 통합시키고 勞動에 대한 代價에 해당하는 分配를 받도록 조치되었다. 이러한 두가지의 社会主義的改造作業은 北韓의 社会階層構造에 있어서 中間層을 제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農業의 集團化를 도모함으로써 農村에 있어서의 階層分化를 저지하고 富農의 출현을 억제한 것이며, 中小商工業을 集團化함으로써 都市의 旧中産階

級을 말살한 것이다.

요컨대 北韓은 해방이후 일련의 社會主義的改造를 추진하면서 社會階層의 上層部를 차례로 제거한 셈이다. 그러한 整理作業이 대충 마무리된 오늘날 北韓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社會階層이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① 政治的支配階層
- ② 管理職, 技術職으로 이루어진 中上階層
- ③ 事務職으로 이루어진 中流階層
- ④ 工業勞動者로 이루어진 下流階層
- ⑤ 農業勞動者로 이루어진 下流階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管理, 技術職 및 事務職으로 이루어지는 中間階層이다. 그들은 大規模의 組織體를 運營 管理하고, 企劃, 統制하는 業務를 遂行하거나 技術的인 전문분야를 관장하는 계층으로서 그 성격상 現代社會의 運營에 直接的으로 要請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초교육이 요구되고 職務的인 熟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成分은 勞動者階級의 그것과는 異質的인 것이다. 이 階層은 首腦部의 눈에는 언제나 못마땅한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革命課業의 수행에 소극적이고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흔히 勞動者들의 열정에서 일어나오는 創意性을 무시하고 科學과 技術에 맹목적으로 집착한다고 비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몇차례에 걸쳐 階級鬭爭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社會主義的改造事業의 熱風에 휩쓸렸던 계층이다. 1958年 9月에 있었던 이른바 「붉은 편지」 討議事業을 여기 그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共産黨의 지령에 따라서 모든 事務職部門, 學校, 行政機關, 심지어 文化藝術部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남은 인테리」에 대하여 階級的攻擊을 加한 것이다. 그 결과 中間階層에 殘存하던 資本主義的, 非社會主義的인 要素가 일단 淸산되었다. 많은 인테리가 勞動階級으로 전락하였고 나머지 인테리들도 物心兩面으로 심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國家機構의 量的, 質的 擴充, 工業化의 推進등의 추세는 事務職, 技術職 종사자의 擴大를 송두리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北韓의 指導層이 제아무리 階級的成分과 思想的要素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못지 않게 産業化, 官僚化의 추세도 또한 強力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는 「群衆路線」의 政策的課題와 「社會主義的工業化」의 政策的目標 사이에 가로놓인 모순과 긴장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는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中間階層의 운영도 바로 그 결과에 달린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지도층의 결정이, 産業化의 社會的要請에 좀 더 부응하는 方向으로 기울어진다면 中間階層의 量的, 質的擴大는 가능해질 것이고 그것이 群衆路線의 노동자중심적인 階級政策으로 기운다면 中間階層은 위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2) 規範的價值類型의 特性

앞에서 우리는 社會構造에 대한 一般理論으로서 社會體系理論을 살펴본 바가 있다. 그것은 特定社會의 靜態的構造의 側面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파아슨스의 類型變數가 유용하다는 점을 살펴본 것이다. 파아슨스가 제시한 類型變數는 곧 한 社會의 制度化된 規範的價值를 類型化한 것이기도 하다. 파아슨스의 이론에 따라서 이루어진 特定社會에 관한 研究로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립셋(S.M. Lipset)의 그것<sup>24)</sup>과 그것을 經濟發展의 문제와 결부시킨 호즈리츠(B.F. Hoselitz)의 그것<sup>25)</sup>이 특히 유명하다. 北韓의 社會構造를 分析하려는 이 論文은 北韓社會에 관한 間接적인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規範的價值類型의 分布狀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호즈리츠의 所論에 비추어보는 方法을 採하기로 한다.

### ① 普遍性 - 特殊性

北韓의 지도층은 1966年 2月 党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會議에서 「各界各層群衆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대하러」라는 議題를 討議 決定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北韓社會의 全構成을 「核心群衆」과 「基本群衆」 그리고 「複雜한 群衆」의 셋으로 範疇化하고 그에 대한 실례적인 調查事業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거기에 입각한 「住民登錄事業」까지를 完結함으로써 政治的 法律的인 조치를 모두 취한 것이다.<sup>26)</sup>

公式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階層区分은 실질적인 次元의 社會關係에도 커다란 影響을 미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러

한 区分은 모든 人間關係와 社会的行動의 決定的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 区分은 전통사회에서 볼수 있었던 班常의 구별이나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못지 않게 엄격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계급의 内集團的紐帶를 강화하고 다른 부수적계급에 대한 類別意識을 고취하는 것이다. 모든 就業活動에 그러한 区分이 작용될 뿐만이 아니라 生活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것이 깊이 작용하게된 오늘날 그것은 곧 階層的 特殊主義의 制度化라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아무튼 그것은 北韓社会의 社会的閉鎖性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것이다.

## ② 業績性 - 帰屬性

北韓社会는 급속한 社会主義化過程을 통하여 여러가지의 傳統的 帰屬性을 많이 청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身分的, 性的, 年令的인 諸差別은 크게 완화되었을 것이다. 業績에 따라서 사람을 식별하고 거기에 맞추어 각종의 보수를 급여하는 風潮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業績性에로의 경향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고 뿌리깊은 작용이 거기에 더해졌으리라고 생각되는바 그것이 곧 전기한 이른바 「群衆路線」이다.



「核心群衆」, 「基本群衆」, 「複雜한 群衆」으로 全住民을 区分함으로써 社會主義的 歸屬性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群衆差別事業은 世代間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世代間的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른바 「出身成分」이란 말이 그것을 뜻한다. 그것이 世代內的 差別的基準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階級的 特殊主義라고 한다면 그것이 世代間的 差別的基準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階級的 歸屬性이라고 할 수 있다. 「核心群衆」에게는 당대의 特典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음 世代에도 특권이 배풀어지고 「複雜한 群衆」에게는 당대에 迫害가 加해될 뿐만이 아니라 出身成分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음 세 대에도 푸대접이 주어지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社會가 閉鎖的 社會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

### ③ 限定性 — 広範性

北韓은 機能的分化의 정도가 낮은 社會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서는 機能的分化는 社會解體를 초래 할지도 모르는 危險要素로 간주되고 그리하여 그것은 크게 억제되어 온 것이다. 이를테면 事務職, 技術職從事者에 대한 각종의 規制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北韓은 住民들의 地位와 役割을 平準化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

은 마르크스의 理論대로 社会的分業을 完全히 撤廢하지는 못했지만  
몇차례의 改革을 통하여 分業으로 인한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政策을 펴왔다. 여기 人間關係를 支配하는 規範的 價值體系는 다분  
히 廣範性을 띠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서는 대상으로  
부터 特定的기능과 限定的役割을 기대하기 보다는 広域의 기능과  
役割을 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가능보다는 成分, 党性  
과 같은 좀더 넓은 範圍의 屬性이 중시되고, 기능이 중시되는 경  
우에도 기능의 多樣性, 交替可能性등이 특히 중시되는 만큼 그것은  
廣範性의 유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 ④ 個人志向性 — 集團志向性

흔히 全體主義社會로 불리우는 共產圈社會의 一般的屬性과  
같이 北韓社會에서도 集團志向性이 支配的일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서 새삼 더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北韓은 개인소유의 자산  
을 沒收함으로써 個人의 경제적영역을 말살하였고 一黨獨裁의 體制  
를 確立함으로써 個人의 정치적영역을 말살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민이 劃一的으로 集團化된 것이다. 그러한 構造的條件 속에서  
個人志向性의 規範的 價值類型은 찾아 질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北韓社會의 規範的 價值類型을 파아슨스의 類型變數  
중의 네가지 變數에 비추어서 살펴 본 셈이다. 물론 그것은 어

디까지나 推論的性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分析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호즈리츠의 연구<sup>27)</sup>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① 北韓社會의 規範적 가치 유형에 반영된 社會構造는 特殊性 - 歸屬性 - 廣範性 - 集團志向性의 前近代의 類型에 가깝다. 적어도 事務職, 技術職의 少數中間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社會階層과 社會集團에 있어서는 前近代의 類型이 支配的인 것이다.

② 北韓의 社會構造가 前近代의 類型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經濟發展 혹은 産業化를 저해하는 決定的인 要因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北韓은 철저한 計劃經濟體制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의 體制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유형의 社會구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③ 産業化가 일정수준이상으로 진행되면 그 부수현상으로서 近代的인 類型의 規範적 가치 체계가 創出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重工業 혹은 軍需産業을 주로 하는 北韓의 不均衡的인 産業化는 그들의 前近代的인 價值類型과 서로 부합하는 바가 있지만 언젠가 그들의 産業化가 消費財産業 또는 輕工業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遠心圓的인 近代的인 價值類型이 태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경향은 超體制的인 성격의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前衛的役割은 주로 事務職, 技術職에 종사하는 中間階層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것이다.

### III . 北韓 社會의 構造的 變動

#### 1 . 社會變動의 一般理論

우리는 [ II - 1 ]에서 社會의 構造的側面을 把握하기 위한 理論的模型으로서 社會體系의 理論을 살펴 보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社會體系理論이 提示하고 있는 몇가지의 概念과 理論的 前提에 立脚하여 (특히 파아슨스가 提示하는 類型變數에 따라서) 北韓社會의 構造的側面을 밝혀보려고 示圖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北韓社會의 動態的側面, 即 社會變動의 側面을 살펴 보아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역시 社會體系理論에 의지하므로써 北韓社會의 構造的 變動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1) 社會變動論의 一般的視角

社會體系理論은 社會構成諸要素의 相互依存性和 均衡을 前提한다. 파아슨스는 社會體系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體系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根本的인 屬性은 部分 혹은 變數간의 相互依存性이다. ....相互依存性이란 부분이나 變數간에 確正的인 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한 體系에 속하는 諸構成要素의 關係의 秩序를 말한다. 이 秩序에는 自体維持의 傾向이 있는데 그것을 극히 一般的으로 말하면 均衡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體系는 研究할 價值가 있을 만큼 永久的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秩序를 維持하려는 경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靜態的인 自体維持 혹은 安定된 均衡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秩序있는 變動過程일 수도 있다. 그過程은 일정한 類型을 따르는 과정이다. 이것을 가리켜 動的 均衡이라고 하며 成長의 현상이 그 좋은 예다. (28)

社會體系論者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社會變動은 量的變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構造的變動」 즉 質的變動도 포함된다. 여기 構造的變動이란 構造的 分化過程 또는 分化된 諸部分을 統合시켜 주는 메카니즘 혹은 類型이 發展돼 나가는 것을 말한다. (29) 社會의 構造的變動과 연관된 分化의 條件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30)

① 진정한 分化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分化된 單位에 帰屬되어 있는 制限 便宜가 해방되어 보다 高차적인 單位에 의하여 活用되겠끔 적절한 適應的 메카니즘을 통하여 쓰임새 있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② 構造的 再組織은 무엇보다도 集合體의 構造的 觀點에서 볼 때 새로운 分化된 諸單位가 좀더 큰 體系內에서 서로 연결되는 방법과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③ 構造的 規範的 構成要素가 分化과정의 일부르써 재조직되는 것은 制度化된 規範이 좀더 일반적으로 복합되는 것을 말한다.

④ 體系의 機能遂行을 지배하는 規範이 分化되기 이전보다 더 高차적인 一般성의 水準을 維持하게 되어야 한다.

⑤ 分化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새로운 体系의 價值가 内容上 원래의 그것과 상이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價值는 그것이 분화된 단위의 機能을 正当化시켜 주기 위해서는 보다 擴張的이어야 한다.

결국 파아슨스가 說明하는 社會의 構造的變動은 社會体系内에서 構造的分化가 發生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規範과 價値의 再調整이 일어나는 과정인 셈이다.

보스코프 (A. Boskoff) 는 파아슨스의 社會變動論을 비판하고 그 자신 새로운 理論을 수립하려고 기도한다. 그에 의하면 파아슨스의 社會變動論은 ① 너무 거창하고, 너무 보편적인 성질의 것이며,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② 構造的 側面과 變動의 側面 사이에 지나치게 두꺼운 벽을 쌓고 있어서 實際적인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③ 명백한 概念的道具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1)</sup> 그는 그 자신 두가지의 推論的命題를 던진다.<sup>32)</sup>

① 制度的水準이 變化와 變化에서 비롯되는 緊張을 統制하는데 있어서 效果的인 것이 되지 못할 때 社會變動의 과정이 발생한다. 그것은 곧 制度的缺陥에 의한 변동이다.

② 制度的水準이 機能的統制의 메카니즘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担当者와 担当者의 動機에 상당한 변동이 일어날 때 社會變動의 과정이 발생한다. 그것은 곧 制度的默認 혹은 助長에 의한 변동이다.

그는 상기한 命題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經驗的으로 調査할 수 있는 概念圖式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기도한다. 그는 社會變動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理論體系를 수립하기 위하여 社會變動의 各局面을 基本的假設의 形態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革新的價值 혹은 革新的行動의 局面

i. 社會體系의 네가지 機能的要件(適應, 目標達成, 類型維持, 統合)을 充足시키기 위한 役割의 專門化가 增大할수록 各機能의 範圍에 있어서의 技術的, 管理的 成員間에 變動과 革新을 위한 機會가 增大된다.

ii. 適應의 機能과 目標達成의 機能은 類型維持 및 統合의 機能보다 變動의 機會를 더 많이 提供한다. 다시 말하면 經濟的, 政治的領域이 藝術的, 家族的인 諸領域보다 變動可能性이 더 크다는 것이다.

iii. 適應의 機能과 目標達成의 機能의 變動은 社會類型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 이를테면 그러한 變動은 民俗的類型的 社會와 世俗的類型的 社會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iv. 變動의 機會는 社會體系의 네가지 機能的要件이 作用하는 힘, 즉 資源, 時間, 担当者, 言語的表現 등에 있어서의 變化와 直接的인 關係를 가진다.

v. 革新의 機會와 革新의 동기는 네가지의 機能的要件的 各領域內에 속하는 諸個人間, 諸集團간의 갈등의 量과 直接的인 關係



를 가진다.

v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영역에 存在하는 革新의 기회와 革新의 동기는 制度的水準에 있어서의 支配를 위해 集團間에 벌어지는 競争의 양과 直接的인 關係를 가진다.

vii. 革新의 기회와 革新의 동기는 기능적요건을 充足시킴에 있어서 그 效率성을 認定하는 程度와 逆比例한다. 이것은 逸脫 또는 逆機能의 問題로 表現될 수 있는 命題이다.

### ② 革新의 統制와 助長의 局面

i. 일정한 기능적영역 또는 社会体系의 全体内에서 발생한 革新을 統制 또는 封鎖하는 것은 類型維持 및 緊張管理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作用될 때이다.

ii. 制度的集團에 의한 革新의 統制 혹은 支持는 下位集團과의 相互作用의 特徵적인 類型과 關係된다. 一般的으로 相互作用의 体系가 融通性이 있고 広範할수록 革新의 傳播機會는 증대되고 그것이 制度的水準의 役割遂行者에 의해서 무시될 가능성도 적어지는 것이다.

iii. 革新의 전파는 각종의 엘리트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特質 - 帰屬性, 편합한 利害關係, 전통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인가, 또는 成就性, 普遍的利害關係, 討論의 價值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인가 - 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 ③ 派生的結果의 局面

革新이 발전되고 그것이 정당화되면 社会体系에는 다음과

같은 文化的, 組織體的인 諸結果가 수받된다.

i. 종전에는 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報償이 주어지지 않았던 技術이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提供된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組織的形態가 생겨날 潛在的可能性도 增大된다.

ii. 모든 社会体系에는 어느 정도의 自律性이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社会集團間 또는 社会的 機能的要件間에는 自律性에 반대되는 統合도 存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部面에서 肯定되는 革新은 다른 部面에 있어서의 活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iii. 비록 앞의 것과는 반대되는 側面으로 社会体系의 各부분이 統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完全한 統合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한 部面에서 變動過程이 高度化되는 경우에도 다른 部面에서는 統合的, 調整的關係가 감소되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된다. 이른바 遲滯現象이 그것이다.

iv. 革新은 社会体系内の 성원에 대하여 새로운, 혹은 修正된 社会的役割을 要求한다. 또 새로운 역할과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地位는 새로운 相互作用의 가능성을 조성한다.

v. 革新의 広範한 派生的結果는 哲学, 神学, 文学, 芸術, 娛樂 등에서 表現되는 價值体系 혹은 態度, 熱望등을 包含하는 文化的인 것이다.

상기한 보스코프의 社会變動論은 그 前提와 假說에 적지 않은 制限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대로 그것은 社会變動을 經驗的으로 檢討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評價될 수 있

을 것이다. 그 前提와 假說이 전폭적으로 確證되었다는 아무런 實際的인 証拠는 없지마는 그것은 종래의 社会体系論的인 社会学理論에 비추어 보아 대체로 받아들일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北韓社會의 構造的變動에 관한 理解를 圖謀함에 있어서 보스코프의 假說的諸命題를 援用하려는 것이다.

## (2) 社会体系論的 共產社會變動論

파아슨스는 1964년에 발표한 論文에서 共產社會와 資本主義社會를 비교하고 共產社會의 變動趨勢를 대략 다음과 같이 展望하고 있다.<sup>33)</sup>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가 共通的으로 經驗하고 있는 社會變動은 産業化 또는 近代化의 과정이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産業革命과 더불어 시작된 變動過程이기도 하다. 産業革命과 그 以後의 主된 傾向은 分業과 技術의 進歩를 통한 生産力의 增大이다. 아울러 組織도 발전되었다. 그러한 과정은 그 결과로서 經濟的福祉를 제대하였다. 그것은 消費生活의 豊족과 그 平準化를 제대한 것이다. 産業化의 社會過程이 배태되면서 대두하기 시작한 두가지의 基本的인 問題點이 있다. 産業化의 過程으로부터 발생하는 利益을 分配하는 問題와 그러한 分配를 통제하는 메카니즘의 問題이다. 社會主義者들은 「勞動者階級」에게 보다 많은 利益을 分配해 주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實際로 社會主義運動이 나아가는 방향은 勞動者階級の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쪽이

아니라 新生國에 社會主義運動을 수출하거나 경제발전을 加速化시키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社會主義國家는 그 支配集團이 종전의 下流階級이나 中流階級으로부터 充員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만이 勞動者階級の 社會일 뿐이다. 그것은 분명히 對內的平等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급속히 産業化하고, 國際政治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전반적인 消費欲求를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의 区分은 몹시 複雜한 것으로 되고 있다. 社會主義運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社會主義運動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産業化가 시작된 나라 卽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오히려 勞動者階級을 포함한 全人口에게 利益이 分配되고 生活水準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不平等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특히 세가지 側面에 있어서 平等化가 현저한 것이다. 「消費」의 平準化가 그 첫째이고, 困難한 처지에 대하여 국가 혹은 勞組에 의한 즉각적인 措置가 취해진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福祉」의 實現이 그 둘째이며, 下層階級이 上昇的 移動의 기회를 통하여, 혹은 그들의 教育水準이 전반적으로 상승되고, 各種의 文化品目에 쉽사리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積極的인 社會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셋째이다.

資本主義社會, 즉 勞動者 以外の 階級으로 하여금 그들의 統制權과 地位를 繼續 保持하게 함으로써 産業化를 이룩한 社會에서 오히려 下層階級の 열등한 처지가 향상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主義者들의 豫言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勞働者階級の 條件을 緩和시켜주는 問題에 관한 한 어떤 면에서는 共產主義體制보다도 資本主義體制가 보다 效果的일른지도 모른다. 우리는 資本主義社會도 利益의 分配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서는 實際적인 措置가 취해지고 있는 많은 事例를 先進資本主義社會에서 허다히 볼 수 있고 그 反對의 현상을 共產主義社會에서 찾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産業化의 初期過程은 私企業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經濟的統制手段으로서의 私有財産制度가 사람들의 利己心과 결부되어 産業化를 促進하는 動力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産業化의 進展과 더불어 生産單位는 개인이나 가족으로부터 擴大되고 나아가서는 官僚制와 같은 거대한 組織體의 出現에 따라서 私有財産은 개인적 所有의 의미를 뛰어 넘어서 公共的, 政治的意味를 띠게 된 것이다. 즉 하나의 政治現象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統制的機能 혹은 支配的權力の 集中 혹은 分散의 問題와 直結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獨裁政治와 民主政治의 問題와도 불가분의 函數關係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社會主義는 私有財産制에 부수된 有産者와 無産者의 隔差가 빚어낸 二大階級體制를 廢止하는데 그 目標을 두었다. 社會主義는 私有財産을 廢止하고 私有財産이 가지는 統制力까지도 剝脫함으로써 그것을 政府에 종속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權力を 배제한 것이 아니라 權力の 두가지 要素, 즉 個人的權力과 公共의 權力を 한데 합친 것이다. 그것은 政治的 權力과 經濟的權力, 公共의 權力과 私的인 權力を

하나로 묶음으로써 「統制者를 統制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問題를 던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實際로 해놓은 일과는 正반대의 主張을 되풀이 한다. 이를테면 國家와 政黨이 소멸될 것이라는 主張이 그것이다.

이러한 二律背反은 결국 清算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體制가 안고 있는 根本的인 딜레마는 그 一黨獨裁를 정당화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한 政府의 統制와 法律的統制를 緩和할 수 있는 길도 그 自体内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終局的으로는 政治的民主主義에로의 회전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共產主義社會가 보이는 또 하나의 추세는 그것이 고도의 産業化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資本主義的方式에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추세는 急進的左翼의 衰退와 緊密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資本主義的方法에 의해서 産業化를 추진함으로써만 勞動者階級의 正當한 熱望이 實現되어질 수 있다는 事實이다.

오늘날 共產主義社會의 變動方向이 政治的民主主義로 나아갈수 밖에 없다는 점 以外에도 그 社會가 西歐世界의 變動方向에 近接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組織이 있다. 거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① 學問, 藝術과 같은 文化的部面은 政治的인 支配를 받기와는 별도로 自律的으로 維持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文化的部面은 科学이다. 産業化와 軍事技術에 있어서 科学이 戰略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그런데 科学은 本質的으로 中央集權的統制體制로부터 어느 정도 獨立한 自律的存在이다.

따라서 全体主義的 政治的統制가 支配的인 公산진영의 경우 科学이 그 社会体系에 遠心的影響을 끼칠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② 날로 더해가는 分業도 科学과 비슷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分業은 원래 多元主義를 促進하는 것이다. 實際로 오늘날 蘇聯社會에서는 分業의 결과 여러 集團간의 勢力均衡이 커다란 問題로 되고 있는 것이다. 政黨, 行政官僚, 産業經營者, 軍事機關, 知識人, 科学者, 藝術家등의 세력균형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斷定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社会構造의 分化가 진행될수록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權威를 嚴格하게 일렬로 序列化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에 多元主義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2. 北韓社會의 構造的變動

共產主義社會의 理念的形態는 흔히 두가지로 區別되어진다. 첫째는 프로레타리아 獨裁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그것으로서 그것은 中央集權的管理部門을 장악한 일부 정치엘리트와 기타의 勤勞大衆으

로 兩分되는 構造이고, 둘째는 完全한 共產社會에 이룬 시기에 있어서의 그것으로서 그것은 全体社會가 同質的인 單一集團으로서 階層 혹은 階級的의 区分이 消滅된 構造이다. 그러나 오늘날 實際로 存在하는 共產主義社會는 그러한 두가지 형태의 어느 것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社會的의 分化現象이 嚴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共產社會는 被支配의 大衆을 社會經濟的으로 平等化하고 社會心理的으로 同質化하려는 노력을 잠시 경주해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어떤 共產社會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平等化가 이루어진 곳은 없다.

그 原因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經濟發展 혹은 産業化의 절박한 要請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共產陣營에서도 몇몇 先進的의 工業社會는 이데오로기의 目的보다도 經濟的의 合理性에 立脚한 效率性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sup>34)</sup> 그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몇가지의 社會的의 隨伴現象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社會의 體制的의 性格에 모종의 變化를 야기시키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現象은 蘇聯을 비롯한 몇몇 先進的의 共產主義社會에서 이미 노정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社會의 構造的의 變動을 論議하는 마당에 있어서 마땅히 考察되어야 할 側面은 실로 많다. 그중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社會體系論的의 혹은 構造機能主義的의 變動理論에 비추어서 그 說明을 시도하려면 社會體系를 이루고 있는 下位體系에 대한 立體的의 考察과



社会的各單位에 대한 規定的考察이 先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考察의 範圍를 制限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結論은 다음에 이루어질 本格的研究的 한 指針이 되게 하는 정도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우리의 考察은 社会的 多元化와 그에 따르는 規範的價值体系의 變質問題에 한정되는 것이다.

(1) 社会階層構造의 變動 — 技術職, 專門職從業者의 擴大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으로 兩極化될 것이라고 豫言하였다. 同時에 그는 各階級の 成원은 内部的으로 同質化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마르크스가 그와 같이 階級構造의 兩極化, 階級構成員의 内部的同質化를 단언할 수 있었던 根拠는 다른 어떤 工業的生産力과 技術의 發達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豫言은 바로 그가 믿었던 工業的生産力과 技術의 發達이 內包한 또다른 作用力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 것이다. 工業的生産力과 技術의 발달은 階級構造를 兩極化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多元化시키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階級構成員을 同質化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다양화시키는 추세를 보여 준 것이다.

이른바 新中間階級の 生成이 앞의 경향이고 熟練職의 量的, 質的 擴大가 뒤의 추세이다. 35) 이러한 社会的分化, 社会的多元化的 현상은 超體制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工業的生産力

과 技術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는 모든 社會, 즉 産業化를 추진하고 있는 社會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한 社會的分化現象이 극도로 銳角의形態를 띠우고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 技術職從事者의 量的, 質的 擴大의 현상이다. 특히 人爲的으로 社會階層構造를 양극화시킨 一 政治的支配層과 勞動者大衆으로 一 共產主義社會에서 産業化의 요청에 밀려 技術者 혹은 事務職이 대량으로 양성, 배출되고 있는 점은 興味롭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 本來의 理念은 社會的分業과 職業的專門化 그것 自体를 反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의 指導層은 産業化를 達成하기 위하여 「技術革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技術革命, 그것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人民을 고된 勞動에서 해방하며 일은 알차게 하면서도 더 많은 物質的 富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人民의 生活을 더욱 넉넉하고 文明하게 만드는 중요한 革命課業입니다. 技術革命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뒤떨어진 生産力을 물려받은 우리나라에서 새 社會制度의 終局的勝利를 위하여 가장 주되는 問題를 푸는 것으로 됩니다. .... 7 個年計劃의 基本課業은 勝利한 社會主義制度에 依拠하여 전면적인 技術建設과 文化革命을 수행하여 人民生活을 計劃的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社會主義的工業化를 實現하고 人民經濟의 모든 부분을 現代的技術로 꾸리며 모든 人民의 物質文化生活水準을 決定的으로 높이며 社會主義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겠습니까. 36)

이와같은 취지에서 北韓은 1957年4月 学制를 개편하고 「九年制 技術義務教育制」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1961년부터 시작된 「7個年經濟計劃」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社會主義的 工業化가 本格的段階에 접어드는 시기에 技術人材를 양성하기 위한 制度的措置를 취한 것이다. 그때까지만해도 北韓에는 技術者의 수요에 비하여 훨씬 미달하는 상태에 있었다.

1960年8月 共產党中央委員會副委員長이 행한 報告를 보면 1960年度 北韓의 主要經濟部門의 技師確保比率은 총체적으로 需要의 35.4%에 불과하였고 機械製作工業에 있어서는 20.1%, 電力工業에서는 35.6%, 化學工業에 있어서는 49.4%나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7) 그들의 教育制度改編의 目的은 그와같이 절박한 技術者의 貧困을 해결하고 아울러 기초적인 技術教育을 널리 실시함으로써 전면적으로 生産勞動에 종사할 수 있는 共產主義的 人間像을 양성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改革的措置를 통해서 7個年 經濟計劃期間에 46萬名의 技手 혹은 中等專門家를 양성하고 18萬名의 技師 혹은 專門家를 高等教育을 통하여 양성하려고 하였다. 38) 이것은 그 이전 10年間に 양성한 技術者, 專門家의 數를 10배 이상으로 擴大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구체적인 統計資料는 다음과 같다. 39)

時 期 区 分	해방직 후	1953	1957	1960	1964	1966	1970
		10.10	9.20	11.15	10.31		
技術者·專 門家 總數		21,872	73,558	133,466	293,506		
技 師	964	1,837	5,860	11,991	43,544	技師와 專門家	技師, 및 技手 專門家
技 手	4,000	6,763	22,429	57,978	136,250	170,000	497,000
專 門 家		13,272	15,410	26,005	66,347	技手와 中等專門 家	
中等專門家			29,659	37,492	47,365	260,000	

여기에서 살펴 볼 때 北韓에 있어서 技術者 혹은 專門家の 大量 양성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指導層의 意圖的計劃에 의하여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加速化될 것이라고 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役割과 기능의 分化를 언제나 地位의 分化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 뚜렷한 證據는 없지만 北韓에 있어서 불원 사람들의 社會的地位의 分化가 公式化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이미 報酬體系에 있어서의 그러한 分化는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의 技術職, 專門職人口는 아직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것이 하나의 同質的集團으로 간주될만큼 社會的, 文化的인 獨自性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産業化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조만간에 하나의 社會的範疇로

취급될 수 있을 만큼 對內的同質性과 對外的獨自性을 가지게 될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産業化의 물결이 共產主義의 劃一化의  
努力을 훨씬 능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展開되는 것은 아니다. 效率性  
과 效果性, 技術的知識과 政治思想的敎養 專門性과 党性의 두가지  
서로 대립되는 일련의 要素들 가운데에서 效果性, 政治思想的敎養, 党  
性등이 指導層에 의해서 계속 강요되기 때문이다. 産業化에 절대  
적으로 必要한 技術者, 專門家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의 能力을 동  
원하는데 있어서 物質的인 誘引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精神的·  
思想的인 動機要因을 고수하려는 지도층의 態度가 문제인 것이다.  
東歐共產圈이 이미 修正主義의 路線을 採択한지 오래고 蘇聯도 利  
潤動機에 입각한 經濟施策을 시행하고 있는<sup>40</sup>, 오늘날에 있어서도  
北韓은 선동적방법에 依存하는 動員體制를 고수하려 하고 있는 것  
이다. 이른바 「千里馬運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大衆運動을  
일으키고 수차에 걸친 肅清運動을 벌려온 것이다.

그러나 技術者, 專門家들이 量的으로 增加되고 그들 특유의 意識  
을 가지게 되는 客觀的過程을 송두리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技術者 혹은 專門家들의 意識은 階級的이데오로기에 기초하는 것이  
라기 보다는 合理性에 기초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들이 습득하고 活用하는 自然科學的知識은 어디까지나 合理性에  
입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自然科學的知識體系는 合理主義, 實用主  
義, 經驗主義의 思惟方式에 의해서 밀받침되는 것이다. 그러한

思惟方式을 長期間에 걸친 教育過程 속에서 習得하고 나아가서는 職業的活動속에서 直接 活用하게 될 때 자연 그들의 意識은 脫이데오로기의 志向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그들에게 주입하려는 非合理的階級思想이 說得力을 가지기가 힘들 것이다.

社會主義社會는 革命을 遂行하는 초기과정에서는 非合理主義的, 非實用主義的, 非經驗主義的인 召命意識이 모든 社會성원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지는 법이다. 그러나 차츰 社會가 安定되고 産業化의 水準이 높아짐에 따라서 革命의 열정은 退潮되지 않을 수 없고 그대신 實務的인 計劃性이 高조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의 變調는 技術者, 전문가 혹은 事務職從事者의 屬性에 부합되는 것이다.

北韓社會도 産業化의 水準을 상승시킴에 따라서 보다 複雜하고 보다 技術的인 여러가지 問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理念的이기 보다는 實際的인 問題가 증대되게 될 것이다. 政治的方法으로 해결해야 할 問題보다도 行政方法으로 해결해야 할 問題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技術的技能의 重要性이 증대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理念主義者 혹은 軍國主義者들의 역할이 감소되는 대신 經營的實務者, 行政官僚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이다. 41)

共產社會에 있어서의 技術職, 事務職, 專門職從事者들의 社會的性格은 資本主義社會의 新中間階級 혹은 화이트 칼라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될 것이다. 다만, 公式的價值로서 주입받은 意識의 表層이

다를 뿐 그들의 社会的存在의 기반이 비슷해짐에 따라서 社会的性格도 비슷하게 되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共產主義社會, 특히 北韓社會의 硬直된 構造 및 理念은 技術職, 專門職從事者들로 하여금 쉽사리 創造的機能集團으로 기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政治的統合이 극도로 강조되고 政治的統制의 메카니즘이 고도로 발달된 北韓의 政治的特性을 고려할 때 당장 그들 技術職, 專門職從事者들의 集團的自律性を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産業化의 추세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양이 꾸준히 增大되면 언젠가는 그들은 體制的性格에 變化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酵母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전기한 인테리改造事業은 이미 나타난 그러한 현상의 反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技術者들의 存在와 意識이 北韓社會에서 이미 하나의 問題點을 던지고 있다는 하나의 証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規範的價值類型의 變動

우리는 앞에서 北韓社會의 構造的側面으로서 그 規範的價值類型을 살펴본바 있다. 普遍性-特殊性, 業績性-歸屬性, 個人志向性-集團志向性 등의 類型變數에 비추어 北韓社會는 대체로 後者의 類型에 가깝다는 것을 살펴본 것이다. 特殊性-歸屬性-集團志向性的의 規範的價值類型을 社會構造로서 지닌 社會는 대체로 前近代的인 혹은 落後된 後進社會로 알려져 있다.

北韓社會를 包含한 共產主義社會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規範的價值類型의 特徵은 資本主義的後進國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社會的基盤을 가지고 있다. 資本主義的後進國에 있어서 發見되는 特殊性 - 歸屬性 - 集團志向性의 規範的價值類型은 주로 血緣과 地緣 또는 傳統的身分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데 반하여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그것은 階級에 그 社會的基礎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의 그것은 勞動者·農民의 階級的인테 오르기에서 비롯되는 特殊性, 歸屬性, 集團志向性인 것이다. 그럼으로 産業化의 作用이 그들의 價值類型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더 색다른 과정을 경유하게 될 것이다. 즉 産業化 以前에 잘 느끼지 못하던 기능과 역할의 단조로움을 産業化를 통하여 깨닫고 産業社會의 運營에는 勞動者, 農民 以外의 機能的集團도 緊要하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서 價值類型에 變化가 초래되게 될 것이다.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産業社會에서 勞動者, 農民 唯一의 劃一的價值體系는 適當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그 社會가 眞實히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提供해 주는 새로운 社會集團을 영원히 의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他集團의 利益을 위해서 봉사하고 他集團의 文化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다면 規範的價值類型의 變動問題에 있어서도 전기한 新 中間階級으로서의 技術者, 專門家들의 발생과 성장이 問題로 되는 것이다. 階級思想에서 연유하는 特殊性 - 歸屬性 - 集團志向性의



價值類型은 普遍性 — 業績性 — 個人志向性의 近代的 價值類型으로  
모시킬 가능성을 지닌 社會集團은 그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規範的價值類型의 變動可能性은 社會的目標를 達成하는데  
그 社會가 動員하는 힘의 性格을 통해서도 알아 볼수가 있는 것  
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힘 規範的인 힘, 報償的인 힘의 세가지<sup>42)</sup>  
중의 어느 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側面을 통해서 알아  
보는 것이다. 강제적인 힘은 물리적인 暴力을 의미하고, 規範的인  
힘은 이데오로거나 價值를 中心으로 하는 것이며, 報償的인 힘은  
주로 物質的誘引에 依存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힘의 分布는 社  
會的機能의 分化程度, 社會連帶性의 類型등과 緊密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결국 産業化의 水準에 따라서 그 세가지 힘의 分布狀態  
가 달라지는 것이다.

종래 北韓社會는 그들의 社會的目標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강제  
적인 힘과 規範的인 힘을 주요수단으로 삼아온 것이다. 社會主義  
的改造에 着手하던 초기단계에서는 강제적인 힘이 보다 세게 작용  
되었고, 그 후 社會主義的基礎가 다소 安定되면서부터는 規範的인 요  
소가 擴大된 것이다. 앞으로 産業化의 水準이 高度化되어 一般大  
衆의 經濟的, 社會的인 欲求가 政治的決定에 어느 정도 反映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報償的인 요소가 발전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 IV. 結 語

北韓社會의 변동가능성과 변동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 論文의 考察은 몇가지의 未備點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변동의 自然發生的인 측면에 주목한 나머지 변동을 억제하는 人爲的統制의 요인과 外部의 環境적요인을 捨棄한 것이다. 人爲的統制의 要因은 政治的權力構造의 측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외부의 環境적요인은 國際政治的作用力의 측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共產主義社會가 中央集權的의 政治構造를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北韓社會의 政治構造는 強壓的인 指令體制로 알려져 있다. 특정인물을 頂點으로 하는 單極的權力體系가 溫存하고 있고, 黨組織의 統制力이 行政官료의 統制力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自然發生的의 社會變動의 추세가 상당한 정도로 저지될 것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北韓의 權力構造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政治的엘리트를 층원하는데 있어서 「專門性」이 차츰 중요한 指標로 되고 있다는 점이 그 한 예이다.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權力構造의 基層이 高等教育을 통해서 專門性을 습득한 革命後世代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경향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외부적, 環境적요인도 自然 발생적社會變動에 대해서 일정한 작용을

하게 될것이다. 거기에는 北韓이 소속하고 있는 共產陣營内部的  
作用力이 있을 것이고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으로부터의 영향도  
작용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대한 외부적, 환경적요  
인은 南北關係의 調節樣相 또는 南北間의 긴장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關係의 調節樣相 또는 南北間의 긴장의 정도는 北韓의 自  
然發生的社會變動에 억제적인 작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양상과 정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促進的인 順機能을 할른  
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論文은 北韓의 社會變動을 論함에 있어서 對內的統制의 側  
面과 對外的國際政治의 側面은 論外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것은 이 論文의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필자의 전공범위를 넘  
어서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北韓社會의 自然發生的社會變動의 側面에 관련된 이 論文의 요  
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北韓은 産業化되고 있다.
- ② 北韓에 있어서의 産業化의 추세는 社會的分化를 促進하게  
될것이다.
- ③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的分化는 조만간에 그 社會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 ④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構造의 변동은 階層構造의 多元化,  
意識構造의 多樣化를 제래하게 될것이다.

⑤ 北韓에 있어서의 階層構造의 多元化, 의식구조의 다양화는 중국  
적으로는 그 體制的性格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것이다.

( 註 )

- 1) Talcott Parsons and Edward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 7.
- 2)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of Glencoe, 1951, p. 46.
- 3) Ibid., p. 67
- 4) Ibid., pp. 180 - 200 참조
- 5) Ibid., Chapter 5. 6. 참조
- 6) Ibid., pp. 482 - 483
- 7) 1966年刊, 그의 저서인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 8) 이점은 III 에서 다룬다.
- 9) Ralf Dahrendorf, "Out of Utopia", in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 10) George C. Homans, "Bringing Men Back in", ASR. 29 (Dec. 1964) pp. 809 - 818 참조
- 11) 그들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Hanna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Franz Neumann, Behemoth  
William Kohnhauser, The Politics of Human Society.

특히 공산주의사회에 초점을 맞춘 저작은 다음과 같다.

Mere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 Friedrich (ed.), Totalitarianism

C. Friedrich and Z. Brzen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 12) David Apter, "Political Religion in the New States" in Clifford Greertz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 \_\_\_\_\_,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Robert C. Tucker,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in World politics, Vol.XIX (Jan. 1967)  
 " \_\_\_\_\_ "Towards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 Regimes", APSR. Vol. 55, No. 2 (June, 1961)
- 13) 車洛勳·鄭慶謨(共編)。北韓法令沿革集(서울; 高大亞研, 1969) P. 103.
- 14)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調查部, 1948) P. 375.
- 15) 金南植。'北韓의 共產化過程斗 階級路線' 亞細亞研究 Vol.XIV, No. 3, 1971, P. 111.
- 16) 北韓總鑑(共產問題研究所, 1968) P. 347.
- 17) Ibid., p. 320.
- 18) Ibid., p. 321.
- 19) 金潤煥。'北韓의 經濟發展斗 工業化' 金俊燁編, 「中共圈의 將來」, 汎文社, 1967, P. 138.
- 20) 北韓總覽, P. 322.
- 21) Ibid., p. 329.
- 22) Ibid., p. 385.

23) 1964 년까지의 「천리마작업 반운동」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작업 반수 (인원수)	이중천리마 작업 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천리마학교
1960	928 (21,167)	15	-	-	-
1961	8,550 (206,490)	81	12	-	-
1962	12,743 (365,271)	114	14	-	-
1963	17,057 (586,403)	179	26	1	3
1964	22,260 (852,552)	266	48	1	6

北韓總鑑, P. 387.

24) Seymour M. Lipset and Aldo Solari, *Elite in Latin America*, New York, Oxford, 1967.

25) Bert F. Hoselitz,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Free Press, 1960.

26) 北韓總鑑, PP. 201 ~ 202.

27) B.F. Hoselitz, op. Cit.

28) T. Parsons and E. Shils (eds.), op. Cit., p. 107.

- 29) T. Parsons, "Some Considerations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n *Rural Sociology*, XXVI (1961), No. 3, p. 220.
- 30) Ibid. pp. 237 - 238.
- 31) A. Boskoff 의 社会變動에 관한 主要論文은 다음과 같다.

"Social Change: Major Problems in the Emergence of Theoretical and Research Foci" Howard Becker & Alvin Boskoff (eds.), Modern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The Dryden Press, 1957) pp. 260 - 302.

"Recent Theories of Social Change", Werner J. Cahnman & Alvin Boskoff, (eds.) Sociology and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4), pp. 140 - 157.

"Functional Analysis as a Source of a Theoretical Repertory and Research Tasks i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George K. Zollschan and Walter Hirsh (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4), pp. 213 - 243.

- 32) Alvin Boskoff, "Functional Analysis as a Source of a Theoretical Repertory and Research Tasks i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bid.*, pp. 230 -
- 33) T. Parsons, "Communism and the West; The Sociology of the Conflict" in *Social Change*, *op. cit.*, pp. 390 - 402 참조

- 34) 이것은 R. Aron 과 같은 共產主義論者, D. Bell 과 같은 이데오로기論者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Raymond Aron, *The Industrial Society: Three Essays on Ideology and Development.*  
Daniel Bell, *The End of Ideology.*



- 35) R.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p. 36 - 71 참조 .
- 36) 金日成저작선집 Ⅲ,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李卜寿, '北韓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社会的隨伴現象',  
亞細亞問題 第50号에서 再引用
- 37) 北韓總鑑, P. 589.
- 38) 趙成植, '北韓의 社会教育', 共產主義問題研究所刊,  
統一에 대비한 教育의 諸問題, 1968.
- 39) 李卜寿, *op. cit.*, P. 52.
- 40) 1960년대 초에 採扶된 Liberman Proposal 이후의  
蘇聯經濟政策을 뜻함.
- 41) R. Aron, "Soviet Society in Transition "in *Problems of Communism*, Vol., VI (Nov. - Dec. 1957)
- 42)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1, pp. 5 - 6.

